

原子力에 대한 PA活動



G. Kavrov

Deputy Director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Information

소련에서 유사 이래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들은 전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인식, 특히 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상황변화는 4가지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4기간 중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1940년대 초반부터 1986년 4월까지의 제1기는 원자력기술에 있어서 대단한 발전의 시기였고 원자력 기술과 소련의 사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시기였다.

소련의 과학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기술자 및 전문가들은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

비밀주의는 대부분 학술연구 중에서 의미있는 결과 및 기록들까지도 포함되었다. 그 연구 중에는 산업과 농촌경제, 의학 및 사회와 국가 운영의 여러 측면 중에서 방위와는 거리가 먼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중교통수단, 문학, 예술 등은 소련공산당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고 여러가지 종류의 다른 사항들은 통제되어 있었다. 소련내의 원자력분야에서는 수많은 건설이 시작되었고 원자력산업기지도 확장되었다. 저명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여 원자력분야

는 국민의 눈에 국민경제 중에서도 안전하면서도 영향력있는 분야로 비쳤다.

그와 함께 1970년대 말부터 소련사회와 정부의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소련에는 오랜 기간동안 나이가 많고 실무에 능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유화정책, 불충분한 지식, 연고(緣故)주의, 기만과 사기, 공무원의 범죄행위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경제성장의 속도도 현저히 떨어져 마지막 두번의 산업건설 5개년계획의 과제는 달성되지 못했다.

사회계획은 실패하고 국민들에 대한 학문과 교육, 보건 및 문화생활보장 등의 물질적 기반이 본질적으로 저하되었다. 사회, 경제계에서는 기강과 질서가 납득하기 어려우리만치 해이해졌고 모든 행정과 생산에 있어서 그 연결요소들의 엄격함, 진지함, 책임성 등이 희박해져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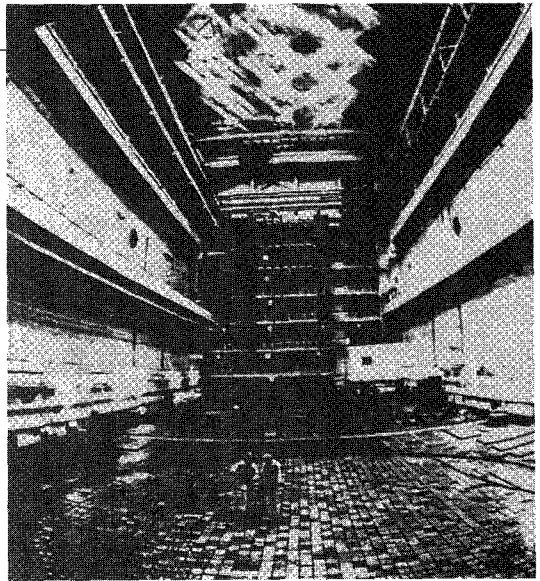
그러한 사태는 소련의 에너지분야에도 해롭게 나타났다. 전국에 파급된 비밀주의제도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보장의 결핍과 교육 의무훈련의 결핍, 원자력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지도원과 직원들의 자격취득감소현상을 사회로부터 은폐시켰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소련사회와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서로의

태도가 너무 상반되었던 아주 짧은(1987년말까지) 제2기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소련지도부와 정부조직, 주민들의 초기결과정과 행동은 극단적 상황의 극복을 위한 소련사회의 충분한 준비를 보여주었다. 주민들의 초기결과과 행동은 극단적 상황의 극복을 위한 소련사회의 충분한 준비를 보여주었다. 그 준비는 원자로 파손으로부터 일어나는 위험방지와 참사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태의 근절을 조직적이고도 기술적인 조치의 연구와 토착화에 있었다. 이 작업은 소연방각료회의의 부의장을 정점으로 하여 정부위원회가 선두에서 지휘했다.

정부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연방정부의 각 부(部) 및 관청들에게는 무조건적이고 의무적인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스, 그리고 러시아는 공화국정부들 간의 상호협력하에서 정부위원회의 시기적절한 결정은 사고후 처음 며칠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뿌리뿌찌市를 포함한 사고지역 30km 이내 근방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의 대피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게 도와주었다. 정부위원회는 비상임무 즉 강력한 방사능 속에서 파괴된 원자로의 핵반응을 진정시키고 사태의 더 이상 파급을 미리 방지하고 그 다음엔 파손으로 인한 결과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조직하는 등의 비상임무를 결정했던 학자, 전문가,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만들 수가 있었다.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소련사람들은 체르노빌의 비극을 모든 민족 그리고 동시에 개인의 재앙으로 느꼈다. 마치 위대한 조국전쟁(2차대전시 독일과의 전쟁)때 전쟁의 종전을 위해 러시아인, 리투아니아인, 우크라이나인, 그루지아인, 벨로루스인, 카자흐인,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등 소연방의 모든 민족, 모든 인민이 쫓기했던 것처럼 협력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체르노빌사고는 소련사회 및 정부와 원자력분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허다한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켰다. 우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높은 수준의 비밀주의와 이 분야학자 및 전문가들의 활동을 여론과 정기출판물로부터 분리, 고립시킨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소련사람들의 일반기술에 대한 낮은 상식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특히 물리학과 생물학분야, 그 중에서도 핵물리학과 방사선생물학에서 그러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 인문과학분야 말고도 물리학과 다른 정밀과학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또한 의학도, 생물학자, 교사들까지도) 체르노빌사태후 야기된 사태를 올바르게 자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즉 국가의 고위지도자들이나 그 고문들의 부족한 지식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실현불가능하면서 무책임하기까지 한 일련의 결정이 이 기간에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써 짧은 기간(3~6개월)동안에 뿌리뿌찌市를 포함하여 반경 30km 지역내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이 지역내에서 피신해 있던 지역주민들을 1987년초까지 원상복귀시키라는 요구를 들 수 있겠다. 군대를 이용한 이러한 일이 생각치 않은 요구의 실현은 수천명의 군인을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으로 끌어들였다. 1986년 5월 파괴된 원자로 속에 있는 핵연료의 상태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대기에 강력한 방사능을 분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때 소련 화학부대장관인 블라지미르 삐갈로프 장군의 명령에 따라 파괴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6km에서 수천명의 군인들이 뿌리뿌찌市와 원자력발전소에서 가까운 인근마을, 부락 등에 있을 방사성물질제거를 실시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작업의 실시를 권했던 정부위원회

의 공무원들 이름은 아직까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커다란 실책은 파괴된 원자로의 위험상황과 정도에 대해 그리고 방사능오염의 성격과 결과에 대해 또는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사능에 관한 정세에 대해 국민에게 보도하지 않고 보도를 제한하려는 당국의 태도였다. 꼭 있어야 할 보도가 결핍된 것을 보고 저명한 사회평론가 구바레프는 그것을 사고후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폭파사고후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도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파괴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믿을만한 보도가 없는 곳에는 억측과 소문이 무성하기 마련이다.

미국인 게일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정보의 부족이라는 것이 특히 절박한 것이라고 느꼈다. 당국의 그러한 행위에 익숙치 못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타스통신의 공식적인 보도로는 도무지 체르노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상자들의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방사능과 결부된 지구물리학자, 의학도, 방사선생물학자 그외 다른 전문가들이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심지어 주위원회부속기관의 지도자들에 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것은 전문가의 책임이 아니다. 라디오와 TV를 통해 방송되고 신문에 보도된 그러한 부분적이고 짤막짤막한 보도는 주민으로부터 진실을 숨길 수 있었으나 확실한 근거를 가진 불안감을 씻어주지는 못했다.

공산당과 소련정부가 올바른 정보와 쉽고도 지시적이지 않으면서 솔직한 언어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할 수 없다는 것을 숨기려는 시도는 방사능공포증에 대한 소요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곧 그 공포증은 주민의 대부분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은 그후 사업가들과 새로 조직된 정당들에 의해서 정권쟁취투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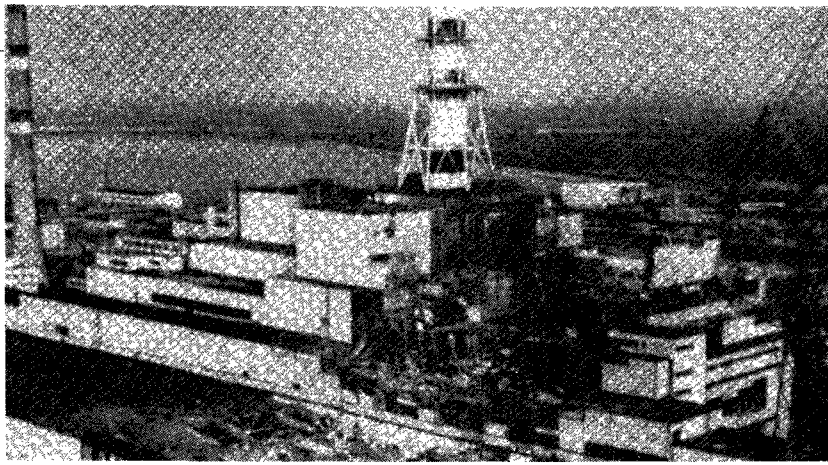
이용되었다. 사실을 너무 오래 숨기면서 이온화된 방출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의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부족한 지식을 이용하면서 집회를 일삼는 민주주의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숨씨를 갈고 닦았다. 그들 중 대다수가 반핵분자들을 만들어 내면서 여러 기관에서 대의원위임장을 얻어낼 수 있었고 정부와 사회의 각 조직들로 이루어진 지도부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정권쟁취과정에서 그들은 체르노빌참사후 국민의 정신건강을 그들의 사업에 어떻게 반영시킬까 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의 과업은 자신들의 정적들에 대한 센세이션널한 폭로를 얻어내는 것이었고, 사회주의 정부기반과 소련사람들 속에서 고취되고 있던 국제주의에 적당히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다모비치라는 작가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체르노빌참사와 발로구스공화국에 맞선 소련과 모스크바의 공산주의집단을 연결지었다. 그는 자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모스크바당국 때문에 백혈병이 벨로루스공화국의 민족적인 병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괴로움도 없이 다만 찬핵론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련의 인민대외원 웨르바끄는 소련방최고회의에서 TV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기형아 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 아이가 체르노빌참사의 희생자임을 의원들에게 단호하게 보장한다면, 그러한 성명의 모든 부조리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오염된 지역에 사는 수십만명의 사람들에게 아주 해로운 정신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의학박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였던가!

그러나 웨르바끄는 확실한 정치적 이익은 얻으려고 하면서 나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체르노빌신드롬을 과장선동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웨르바끄는 소련방최고회의의 일원이 됐다는 위임장과 우크라이나정부에서는 장관의 직책을 받았다. 많은 민주당원들이 그와 비슷하게 행동했다(야보리프스, 야로원스까야, 레메셀, 류쯔꼬, 까드멘스끼 등).



체르노빌참사는 소련의 에너지개발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왔다. 국민경제의 기초부분 중의 하나이면서 소련민족들을 단단히 조이고 있는 그리고 민족진영에서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도둑질하려던 민족적 부르조와들을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했던 원자력발전시스템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체르노빌참사사건이 통일연방의 반대자들에게 주어버린 것이다. 국내경제활동의 성립이 많은 부분에서 원자력발전개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사회주의정부의 와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을 정국과 문벌제도 그리고 지역주의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 노름에서 체르노빌의 카드는 교묘히 이용당했다. 원자력활동에 대한 안전보장의 결핍과 원자력발전개발계획안에서 이미 저질러졌던 파괴행위들이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점을 드러내 보인 대중통신매체는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거부가 초래한 좋지 않은 결과들은 묵살해 버렸다.

러시아공화국에는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부응하는 반원전단체가 생겨났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잠재적인 동맹자들 즉, 많은 지방 예를 들면 이 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등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녹색운동」의 참여자 같은 사람들을 원자력발전반대투쟁에 끌어들이었다. 핵무기에 의해 정권을 잡아보려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공격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영인과 건설자들로 이루어진 공

동단체내의 도덕적, 심리적인 풍토를 혼란에 빠뜨리고 악화시켰다. 원자력연구소 직원의 가족과 직원개인의 집으로 협박장이 날아들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자력발전반대자들은 전국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풍조와 회피현상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조사(1989년에 러시아의 3주에서 실시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강한 지지자는 조사대상자 중 4~6%, 단순지지자는 12~14%, 반대자 40~48%, 강한 반대자 16~22% 등 1991년초까지 지속된 부정적인 사회일반의 견해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탐구적인 작업들을 창조하고 실현해야 하는 여러 단계에서 평균출력 1,900만 kW의 원자력발전소설비가 멈춰지기도 했다. 그 힘으로라면 국가의 향후 에너지공급을 위한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도 있었건만 쓸모없는 작업과 소비, 중지된 건설 등으로 인한 정부의 직접적인 손해액은 4십억루블에 이른다. 그 손해액에는 기간산업에 재투자되는 자금의 동결액, 원자력발전을 위한 건축업과 기계제작 및 핵연료사이클의 계획과 충분치 못한 전력을 보충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포함돼 있다. 이 수치는 크게 증가되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파격적인 과정들은 원자력발전에만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즉 야금술이나 운송 그외 다른 제반분야들에 파급되었다.

엘친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피선후 소련연방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여당의 정치인들을 각 기관의 장관, 의장, 장관, 시장, 주

지사 등의 요직으로 선출했고 임명했다. 주요 정치적 업무가 소련 부르조아정권에 의해 계획되고 실현되었다. 8월소요 실패이후 민주주의자들은 단일 사회주의정부로서의 소연방청산과 그 정치적 기반인 소연방공산당의 와해라는 주요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 승리는 국가전반에 걸쳐 국가의 와해에 의해 생겨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국가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난과 에너지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말았다. 비록 국경선의 재분할, 정부와 당의 재산장악, 그리고 무기에 관한 문제들이 새로이 생겨나 새 정치인들 대부분을 동요시키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상황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그들이 애써 싸워 얻은 정권의 지속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카자흐공화국에서는 나자르바예프가 이미 시기가 성숙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의 길을 찾았는데 이것을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력보상제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기술과 경제적 연구에 대한 지시는 공화국내에 5~6개의 원자력연구소를 세우겠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러시아공화국의 만성적인 에너지위기로부터 가장 실현가능한 탈출방법은 원자력발전소건설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로네췌, 꾸르스그, 무르만스끄, 체랴빈스끄, 마가단 등지의 관청(쏘베트)에서 새로이 뽑힌 대의원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공화국정부는 소련정부에게 이미 그들에게 있어 중요성을 띠게 된 아르메니아 원자력발전소 2기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확보하고 착수할 것을 부탁했다. 聖베제르부르그시의 민주주의자들은 도시와 지역의 동력확보에 대한 전망을 검토해 보며 원자력발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리트비아공화국의 이그날린스끄원자력발전소는 부르조아정부에게 있어서는 운명이 매달려 있는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이미 집권당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로써 뚜렷하게 나타나

는 변화들이고, 더욱이 전 공화국(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리투아니아 등)과 러시아공화국의 지역들(보로네췌, 로스토프, 모스크바 등)의 전력을 확보하려는 자세에서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는 좌절감들이 국민과 사회여론으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가 가져오는 결과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체르노빌참사의 학문적인 큰 의미와 그 방사능에 관한 생물학적 결과들의 비정서적인 이해는 이즈오 시계마쯔 교수의 지도아래 있는 대규모의 외국인 학자집단에 의해 도출된 조사결과와 결론을 유도했다. 즉 국제체르노빌사고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미국 등 기타 선진국들의 예가 소련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MAEP(마에쁘), Goskomgidromet(고스콤기드로메뜨), 보건성과 그외 다른 성(省)과 부(部)에서 만들어진 MVS-IKO, CHOI 그리고 그외 특수조직된 기구들에 의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해설운동은 반원전의 중독으로부터 사회가 깨어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구성과 내용은 특별한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1991년 시행된 사회학적 연구는 국내 원자력발전 동조자들의 수가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르만스크州에선 42%, 토스토프 주에선 47%나 되고, 이 주들에서의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은 앞의 현상과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어 각각 22%와 24%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련 부르조아의 정권획득은 국가의 미래운명에 대한 책임, 러시아공화국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의 새로 생긴 정부들의 에너지위기관리 및 주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음으로 1991년은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해가 될 것이다.